삼귀의 · 오계 수지하고 '참 불자'로 거듭

마산 정법사,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 봉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대학 재가불자 246명
어린이 21명 오계 수지해


스님이 향으로 연비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가 12월 9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서는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전계아사리를, 주지 광우 스님이 갈마아사리를,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이 교수아사리를 맡았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통도사 율원 학감 정본 스님과 현각 스님의 인례로 영축불교대학 학인과 재가불자 우바새 42명, 우바이 204명 어린이 21명 등 총 267명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참 불자로 거듭났다. 어린이들에게는 청수를 뿌리는 의식으로 연비를 대신했다.

갈마아사리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부처님의 오계는 남에게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불자의 생활신조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준다"며 "부처님의 계를 받음으로 모든 허물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설명했다.

전계아사리 덕문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의 덕목을 전하며 "오랫동안 정법사에서 신행 활동을 해온 많은 불자가 수계의식에 참석해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어린이 불자들도 계를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며 "이렇게 많은 어린이 불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불교의 희망이기도 하고 또 주지스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고 격려했다.

덕문 스님은 연비를 마친 수계자들을 대표해 김선정 불자와 한지음 어린이에게 수계첩을 수여했다. 당초 어린이 수계신청자는 100명을 상회했으나 최근 유행하는 독감으로 인해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정법사는 젊은 세대 포교를 위해 불교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왔다. 이후 문호를 넓혀 일반 불자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수계법회도 봉행하고 있다.

화엄사, 화엄석경 보존관리 방안 모색 세미나

12월 10일 화엄석견관서
AI 활용 복원 모습 소개

1만4000여 점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화엄사 '화엄석경(華嚴石經)' 의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화엄사(주지 덕문)는 12월 10일 화엄석경관에서 '화엄석경 전시관 활용 및 보존관리계획 수립 용역 세미나' 를 개최했다.

부주지 우석 스님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화엄석경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지금부터 내딛는 걸음걸음이 법고창신의 전통을 이룩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지 덕문 스님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했다.

화엄사는 세미나에 앞서 올해 4월 20일부터 화엄사와 화엄석경에 관한 학술적 연구자료 조사와 분석 및 연구방향 고찰, 화엄석경 분류 및 복원에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 원형DB 구축 기준 제시, 화엄석경의 재질 분석 및 손상도 평가를 통한 보존관리 방안 제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제시 등 목적을 위해 3회(1차 6월 15일, 2차 7월 14일, 3차 11월 6일)에 걸쳐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화엄석경 학술연구 △유물 분류 및 정리 △보존관리방안 △복원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이날 세미나에서 보고회 행사를 개최했다.

성보보전연구소(대표 박규만)는 용역 보고를 통해 '신라사경 연구에 있어 화엄석경이 가지는 의의과 가치' '화엄석경의 구조 복원 연구 방향 제시' '화엄석경 분류' '가상 파편 복원 개념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 조사' '화엄석경의 재질분석' '손상도 평가를 통한 보존처리 계획 기초조사' '디지털 컨텐츠 제작' 등을 설명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1만4000여 개의 파편을 가상 조립, 복원된 모습을 선보였다. 또 3D 테이터 구축으로 유실된 부분을 메우는 3D 프린팅으로 전체 완성형 모형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학술대회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이규갑 이사장의 '화엄석경의 초보 탐색' △한국사경연구회 조미영 이사의 '〈화엄석경〉 기존 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방향 설정에 대한 제언' △성보보전연구소의 '화엄석경전시관 활용과 보존관리계획수립' 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보물 제1040호인 화엄석경은 의상조사가 신라 문무왕 17년(677) 법당 안에 장육황금입불상(丈六黃金立佛像)을 모신 장육전을 세워 2층 4면 7칸의 사방벽에 화엄경(華嚴經)을 엷은 청색의 돌에 새겼다. 이 장육전이 정유재란 당시 화마로 파괴돼 지금은 조각만 남아 '화엄석경' 으로 불린다.

이후 장육전이 각황전으로 중건될 때 화엄석경 파편들을 불전 근처에 정리하여 쌓아 놓은 것을 1938년 각황전 해체 복원 후 정리했다. 석경은 1만4242점으로 이들을 크기별로 분류해 163상자로 나누어 각황전 불단 밑에 보관했다. 이 화엄석경은 우리나라 화엄종 사찰의 상징적 유물로서 신라 후기의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23 동국인의 밤…"학교발전 위한 결집"

동국대 총동창회, 12월 7일
동국인상 대상 성영식 씨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문선배)가 2024년 동국대 발전을 위해 동문 원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12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35만 동국인과 함께 하는 2023 동국인의 밤' 행사를 열고 학교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다.〈사진〉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2023년 동국대가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8위를 기록하는 등 동문으로서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총동창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 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도 "202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8위의 성과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힘입은 것"이라며 "특히 학생 교육부문 5위 달성은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동문회는 동창회 구심점이 될 동창회관 건립을 비롯해 35만 동국인 역량 결집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행사에서는 그동안 학교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을 갖고 울트라 112 장학재단 설립으로 매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온 경영학과 67학번 성영석 씨에게 동국인상 대상을, 광주전남지부 동문회에 최우수 단체상을 수여했다.

또 2019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과정 초대동문회장으로 발전기금 기부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안성 연등사 주지 도심 스님을 비롯한 8명에게 2023 공로상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동국인의밤 행사에는 행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장을 비롯해 동국대 정각원장을 지낸 은해사 조실 법타 스님과 동국대 전 총장 보광 스님,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전순표 전 총동창회장과 역대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진주 약사정사 팥죽 나눔

12월 10일, 주민 250여 명에



진주 상봉동 약사정사(주지 진여)가 동지를 앞두고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약사정사는 12월 10일 경내 앞마당에서 지역 주민 250여 명에게 동지팥죽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진행하는 무료 도시락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진여 스님은 "추운 날씨에도 동참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팥죽을 드시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신도회 무료 국수나눔

12월 12일 어르신 300명에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신도회(회장 임종혁)가 사랑의 국수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선운사 신도회는 12월 12일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관장 대원)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국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임종혁 선운사 신도회 회장과 정찬원 부회장 등 신도회 회원들은 정성껏 마련한 국수를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지역 주민 어르신 300명에게 대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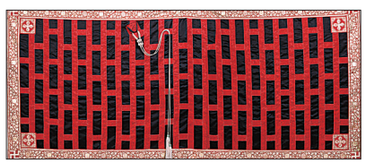
임종혁 회장은 "선운사 신도회는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비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며 "이런 좋은 봉사 기회를 마련해준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관장 대원 스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관장 대원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국수를 대접해주신 선운사 신도회에게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정미자 작가 전통자수 전시

내년 1월 2일까지…24점 전시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성보박물관이 오는 1월 2일까지 '수행(繡行) 문을 열면서' 라는 제목으로 혜서 정미자 작가의 전통자수 작품 24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수행자 의복과 전통가사를 재현한 전통 바느질로 재현한 작품전이다.

정미자 작가는 "수행(繡行)이란 실사(絲)와 엄숙할 숙(肅)이 만나서 수놓을 수(繡)가 된다"며 "옛 반가(규방)에서 이루어졌던 고급문화가 수와 바느질을 통한 예술문화를 정착하듯이 수를 놓는 것을 불가의 수행(修行)법으로 하였다. 금번 전시 작품은 총 24점으로, 대표적인 '일월광첩을 수놓은 9조 홍가사' , 고려불화에서 재현한 '25조 첩상가사' 이다"고 강조했다.

전시회의 대표작품 중 하나인 '일월광첩' 〈사진〉은 해를 상징하는 까마귀와 달을 상징하는 토끼를 중심으로 여러 문양을 표현했다. 불교에서는 해와 달을 불보살의 화신이나 불법을 수호하는 존재로 나타낸다. 해와 달의 광명이 불교의 지혜와 자비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가사의 네 모퉁이에 사천왕첩을 부착해 우리나라의 전통 홍가사만의 특징을 나타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 김장 자비나눔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회장 법안)는 12월 7일과 8일 창원 성주사에서 '우리 농산물판매 촉진 및 관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김치김치 나눔행사에는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 회장 법안 스님(성주사 주지)과 상임고문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 서호관 창원특례시 복지여성보건국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권경숙 복지담당 등이 동참했다.

이날 김장김치 나눔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 300kg(3kg 100박스)를 창원특례시에 전달했다.

김장김치는 창원특례시 마산 회원구와 진해구의 노인복지단체에 전달될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불교계, 어려운 이웃에 김장 전달



광주불교계가 마련한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광주 관음사, 광덕사, 만경사, 문빈정사, 복암사, 보응사, 소원정사, 신광사, 증심사, 약사암, 원효사, 빛고을포교원, (사)자비신행회는 12월 8일 자비신행회 나눔홀에서 북구청(청장 문인)을 통해 북구지역 돌봄이웃 300세대에 겨울 김장김치 2700kg를 전달했다.〈사진〉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소중한 마음을 내어 주신 사찰 주지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해져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통영불교사암聯, 동절기 연탄 · 난방유 나눔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원. 보현사 주지)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난방용 연료와 연탄을 지원했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과 통영불교거사림(회장 안휘성)은 12월 9일 통영시 비석4길 정자에서 '불기 2567년 계묘년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및 난방유 지원식' 을 가졌다.〈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해결하는 2세대에 각각 3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또 7세대에는 각 200리터의 등유(총 4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각 세대마다 라면 1박스와 간편식도 함께 선물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부처님세상, 전북불교대학인의 밤 개최



(사)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불기 2567년 계묘년 전북 불교대학인의 밤' 을 개최했다.〈사진〉

12월 9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백준기 (사)부처님세상 이사장, 이창구 전북불교대학 학장, 김인석 전북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장순금 전북불교대학전법사 회장, 조강숙 자원봉사단장, 재학생과 동문 학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준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전북불교대학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전북불교대학이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 · 수현 불교대학 총동문회 송년법회



조계종 17교구 김제 금산사에서 운영하는 화엄불교대학과 수현불교대학 총동문회가 12월 9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3층 큰 법당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화엄불교대학과 수현불교대학 동문회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불교대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치하했다. 임호연 수현불교대학 동문회장과 강만곤 화엄불교대학 동문회 부회장, 임희창 화엄불교대학 동문회 사무국장에게는 포교와 신행활동에 헌신적인 활동을 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래불교조계종 3대 종정에 성관 스님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총무원장 덕평)이 2024년을 앞두고 3대 종정으로 서울 극락정토사 주지 성관 스님을 추대했다. 여래불교조계종은 12월 14일 서울 망우동에 위치한 극락정토사에서 제3대 종정 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종정 추대 직후 성관 스님은 "무엇보다 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새해 전법포교활동을 비롯하여 사회봉사 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총무원장 덕평 스님은 "빠르게 종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가며 일심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